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Quality and Parent-Fetal Attachment
by Pregnant Couples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미라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
연구교수 강수경
연구원 이혜진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Professor : Mi Ra Chung

Sesalmaul Research Center, Gacho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Su Kyoung Kang

Research Fellow : Hye Ji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References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quality and parent-fetal attachment. The sample included 395 pregnant women and 251 spouses who participated in Pregnant Education Programs. We analyzed the data which were collect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1.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otal marital quality level of pregnant couples was above the average and parent-fetal attachment levels were very high. Result indicated a difference in pregnant women and spouses regarding marital quality and parent-fetal attachment. The pregnant woman's marital quality and parent characteristics (planned pregnant, pregnancy period, birth orde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arent-fetal attachment. The highe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regarding marital quality were, the higher parent-fetal attachment was.

주제어(Key Words) : 임신부부(pregnant couple), 부부관계 질(marital quality), 태아애착(parent-fetal attachment)

Corresponding Author : Su kyoung Kang, Sesalmaul Research Center, Gachon University, Seongnamdaero, 1342, Sujeong-gu, Seongnam si, Gyeonggi do, 461-701, Korea Tel: +82-31-750-8708 Fax: +82-31-750-8632 E-mail: sskang-01@hanmail.net

* 이 논문은 2012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KWU-2012-R0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은 임신부나 가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임신부는 임신 시 태아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등 아직 탄생하지 않은 아이에게 어머니로서의 결속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임신부와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태아애착이라고 한다(Hur, 1995). Cranley(1981)는 태아애착을 '태아와의 상호작용이나 애정을 나타내는 행위에 참여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임신부의 태아애착 행위를 역할취득,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 자기 제공, 태아와 상호작용, 자신과 태아의 구별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임신부의 태아애착은 출산 후 애착의 예측변인이며 임신부의 임신 중 발달과업 성취와 적응을 돕고,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태아애착 관련 연구들은 임신부의 임신 개월, 횟수, 계획임신 여부 등의 일반적인 변인과 결혼만족도, 배우자 지지 등과 태아애착이 관련이 있으며, 태아애착은 분만 후 모-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Baek, 2009; Y-S. Chung, 2001; Grace, 1989; Kim, 1991; Yarcheski, Mahon, Yarcheski, Hanks, & Cannella, 2008).

태아애착 관련 선행연구들은 임신 경험을 임신부만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 경험이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출산에 따른 역할을 준비하기 때문이다(Chung, 2004; Fawcett, 1978; Kim, Yang, & Chung, 2004; Lee et al., 1997). 임신부가 태아의 제 1 환경이 된다면 남편 또한 중요한 환경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관계의 질은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Burney(2001)의 연구에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에 비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장애아를 낳을 위험도가 2.5배 많으며, 신경질적인 아동이 될 확률이 5배나 많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신부의 불쾌정서 및 스트레스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임신부의 정서적 상태는 남편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Ha, 2004).

임산부의 태아애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관련 요인과 생활 스트레스 요인 등이 있다. 그 중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나 부부관계의 질은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임신 중 부부관계는 상호성을 배우면서 서로 지지하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임신동안 신체적, 심리적 반응과 관련이 깊고, 모성역할을 도와주는 좋은 기반이 된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은 임신부에게 영향을 주어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임신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태아

애착 점수는 낮아진다. 반면, 결혼생활에 만족하거나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경우 임신부의 태아애착 점수는 더 높아지게 된다(Baek, 2009; Park & Lee, 1999). 즉,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는 임신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Sung & Joo, 2011), 부부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같은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결혼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H-S. Cho, 2003; Kang & Kim, 2008)임을 볼 때 부부관계의 질이나 결혼만족도는 이후 임신부의 정서와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질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류적 과정, 가족 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과정, 규범적 규칙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Chung, 2001). Cho(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관계 질의 중요한 요인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요인은 결혼생활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인 요인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의 질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k(2009)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지지가 태아애착과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나 의사소통이 임신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 태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가구의 월 소득, 산모의 연령, 계획임신 여부, 임신주수, 출생순위 등의 영향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ranley(1981)는 임신부의 연령이나 임신 횟수, 사회경제적 상태는 태아애착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Yarcheski 외(2009)는 계획임신 여부가 태아애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Ahn(1993)의 연구에서는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태아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Grace(1989)와 Kim(1991)의 연구에서는 임신주수가 높아짐에 따라 태아애착도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임신 기간이나 임신부 연령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우울과 불안 등의 변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임신기의 부부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측면을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태아애착 관련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태아애착만을 주로 다루었고 임신부의 배우자가 느끼는 신체적 변화나 부부관계, 태아애착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정서적인 측면과 의사소통 측면을 포함하는 부부관계의 질과 임신 중 스트레스는 임신부 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임신부의 배우자들이 아내가 경험하는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Fawcett(1978)의 연구결과를 통해 임신부가 가족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가족구성원을 통해 임신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임신에 대한 느낌, 생각, 행동이나 경험 등은 임신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가족 전체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부 뿐 아니라 배우자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와 태아애착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신기 부부가 임신 중 경험하는 부부관계의 질을 정서적 요인과 교류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과 임신부부의 태아애착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임신기 부부의 부모 특성,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임신기 부부의 부모 특성과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구 임신부 부모교육에 참여한 임신부부 가운데 설문 참여에 동의한 총 6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신부 부모교육은 4회기로 진행되었지만,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설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임신부부 동반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임신부 혼자 참석한 경우도 있었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자만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에 답한 연구대상은 744명이었고, 이 가운데 문항에 불성실하게 답한 6부와 임신 16주 미만의 임신부부 98명을 제외한 임신부 395명과 임신부 배우자 251명으로 64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2. 연구도구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부모의 연령, 학력, 월소득과 관련된 3문항을, 출산 변인과 관련된 문항으로 결혼기간, 계획임신 여부, 임신주수, 태아의 출생순위, 출산 횟수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646)

variables	frequency(%)
Gender	
Father	251 (38.9)
Mother	395 (61.1)
Pregnancy period	
16-27	301 (46.6)
28<	345 (53.4)
Birth order	
First	592 (91.6)
Second	47 (7.3)
Twin & Third<	7 (1.1)
Household monthly income	
2,000,000won>	74 (11.5)
2,000,000-2,990,000won	169 (26.2)
3,000,000-3,990,000won	153 (23.7)
4,000,000-4,990,000won	125 (19.3)
5,000,000won≤	108 (16.7)
No answer	17 (2.6)
Planning pregnancy	
In planning	484 (74.8)
No plans	149 (23.1)
No answer	14 (2.2)

2) 태아애착

태아애착은 Cranley(1981)가 개발한 태아애착척도(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Kim(2000)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Cranley의 태아애착척도는 자신과 태아의 구별과 관련된 3문항, 태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5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과 관련된 6문항, 자기제공과 관련된 6문항, 역할취득과 관련된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자신과 태아의 구별과 관련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놓았다', 태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은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야기 한다',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과 관련된 문항은 '나는 아기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고 아기의 성격에 대하여 추측한다', 자기제공과 관련된 문항은 '나는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경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할취득과 관련된 문항은 '나는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등이 있다. 김기영의 연구도구 신뢰도는 Cronbach α .89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1이다.

3) 부부관계의 질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H-S. Chung(2001)의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현숙의 연구에서

는 인지적, 정서적, 교류적 영역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 가운데 임신부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정서적 영역 16문항과 교류적 영역 16문항 총 3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영역은 존중, 상대방 배려의 2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존중은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특성이다. 문항의 예로는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존중), ‘남편은 나와 의 약속을 잘 지킨다’(상대방 배려) 등이 있다. 교류적 영역은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소통의 2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효율적 의사소통은 자유롭게 서로에게 감정과 의견을 나타내는 특성이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차가운 말이나 잔소리 신경질 등 부정적인 성격의 의사소통이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부부는 대화가 잘 통한다’(효율적 의사소통), ‘남편은 나에게 차가운 말을 한다’(부정적 의사소통) 등이 있다. 부부관계의 질은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경우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느낌을 더 높게 가짐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5이다.

3. 자료수집 분석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6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문가 3인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 받고 8월 4일 산부인과 임신부 교실에 참여한 임신부 2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어려운 문항이 없어 본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9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시 임신부 부모교육에 참여한 임신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태아애착, 부부관계 질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모 특성에 따른 차이,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부모 특성 및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일반적 경향

1)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차이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신주수가 짧고(*t* = 3.18, *p* < .01) 태아의 출생순위가 첫째이며(*t* = 5.31, *p* < .001), 계획임신이었고(*t* = 3.12, *p* < .01), 월 소득이 높을수록

Table 2. Differences of marital quality and parent-fetal attachment according to parent characteristic

variables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Parent-fetal attachment behaviors		
	<i>n</i>	<i>M(SD)</i>	<i>t, F</i>	<i>n</i>	<i>M(SD)</i>	<i>t, F</i>
Pregnancy period						
16-27	301	3.08(.33)	3.18**	301	3.38(.37)	-.30
28 <	345	2.99(.34)		345	3.39(.39)	
Fetal birth order						
First	592	3.05(.33)	5.31***	592	3.39(.38)	.11
Second over & others	47	2.81(.30)		47	3.30(.41)	
Planning pregnancy						
In planning	483	3.06(.34)	3.12**	483	3.42(.36)	4.16***
No plans	149	2.96(.33)		149	3.27(.41)	
Family income						
2,000,000won>	74	2.92(.41)	3.93** a < d, a < e	74	3.42(.46)	2.82*
2,000,000-2,990,000won	169	3.05(.33)		169	3.38(.35)	
3,000,000-3,990,000won	153	3.01(.32)		153	3.31(.37)	
4,000,000-4,990,000won	125	3.08(.33)		125	3.45(.35)	
5,000,000won≤	108	3.08(.33)		108	3.42(.38)	

p* < .05 *p* < .01 ****p* < .001

($t = 3.93, p < .01$) 부부관계의 질이 높았다. 또한 계획임신일 때 태아애착이 높았으며($t = 4.16, p < .001$), 가구 월 소득에 따라 태아애착에 차이가 나타났다($t = 2.82, p < .05$). 가구 월 소득의 경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부부관계의 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태아애착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경향성과 차이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에 대한 경향성과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에서 보듯이 임신부의 총 부부관계의 질은 4점 만점에 평균 3.05 이고 배우자는 평균 3.00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배우자에 비해 부부관계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부부관계의 질 중 교류적 측면은 임신부의 경우 평균 3.21, 배우자의 경우 평균 3.16으로 임신부가 배우자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정서적 측면의 경우, 임신부의 평균이 3.26, 배우자의 평균이 3.25로 임신부가 더 높게 인식하였다. 임신부와 배우자의 부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 총 부부관계의 질($t = -2.00, p < .05$),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t = 2.65, p < .01$), 부정적 의사소통($t = 8.51, p < .001$)에서 부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
The couple's difference of marital quality

variables	mother M(SD)	father M(SD)	t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3.05(.33)	3.00(.35)	-2.00*
Interactional	3.21(.42)	3.16(.46)	-1.25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3.14(.45)	3.23(.46)	2.65**
Negative communication	1.60(.56)	2.06(.74)	8.51***
Emotional	3.26(.46)	3.25(.46)	-2.23
Respect	3.25(.50)	3.18(.54)	-1.54
Care	3.27(.51)	3.32(.45)	1.22

* $p < .05$ ** $p < .01$ *** $p < .001$

임산부와 배우자의 태아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Table 4와 같이 임신부의 총 태아애착은 4점 만점에 평균 3.39이었고, 배우자의 평균은 3.37이었다. 태아애착의 하위 요소를 살펴보면 자신과 태아의 구별은 임신부의 경우 평균 3.44로 배우자의 평균 3.33보다 높았다. 태아와 상호작용의 경우 임신부 3.46, 배우자 3.31,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의 경우 임신부 3.46, 배우자 3.33, 역할취득의 경우 임신부 3.45, 배우자 3.41로 모두 배우자에 비해 임신부가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기제공의 경우, 임신부의 평균이 3.20, 배

우자의 평균이 3.43으로 배우자의 평균이 임신부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태아애착과 역할취득에서만 부부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t = -2.98, p < .01$), 태아와 상호작용($t = -3.60, p < .001$),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t = -3.38, p < .01$), 자기제공($t = 5.94, p < .001$)에서 부부 간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The couple's difference of parent-fetal attachment

variables	mother M(SD)	father M(SD)	t
Parent-fetal attachment behaviors	3.39(.37)	3.37(.40)	-.72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3.44(.45)	3.33(.47)	-2.98**
Interaction with the fetus	3.46(.51)	3.31(.53)	-3.60***
Attributing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3.46(.43)	3.33(.49)	-3.38**
Giving of self	3.20(.50)	3.43(.45)	5.94***
Role taking	3.45(.49)	3.41(.52)	-1.01

* $p < .05$ ** $p < .01$ *** $p < .001$

2. 임신기 부부의 부모 특성,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임신기 부부의 부모 특성과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듯이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r = .22, p < .001$), 존중($r = .18, p < .001$), 상대방 배려($r = .21, p < .001$)는 자신과 태아와의 구별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정적 의사소통($r = -.08, p < .05$)은 부적인 관계를 보여,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존중을 많이 하고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수록 자신과 태아의 구별을 더 많이 하였다. 태아와 상호작용은 출생순위($r = .12, p < .01$), 계획임신($r = .11, p < .01$),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r = .30, p < .001$), 존중($r = .27, p < .001$), 상대방 배려($r = .34, p < .001$)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정적 의사소통($r = -.19, p < .001$)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자녀가 첫째이고 계획임신 일수록, 부부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이 많고 존중과 상대방 배려를 할수록 태아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태아와의 상호작용이 적었다. 한편,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의 경우,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r = .32, p < .001$), 존중($r = .28, p < .001$), 상대방 배려($r = .32,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의사소통($r = -.14, p < .001$)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존중을 많이 하고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을 많이 하였다.

또한, 자기제공은 출생순위($r = .08, p < .05$), 계획임신($r = .20, p < .001$), 가구 월 소득($r = .10, p < .05$), 효율적 의사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rital quality, parent characteristic and parent-fetal attachm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arent characteristic	(1)	-											
	(2)	-.09*	-										
	(3)	-.06	.07	-									
	(4)	-.06	.10*	.15***	-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5)	-.12**	.17***	.12**	.12**	-							
	(6)	.08*	-.15***	-.06	-.04	-.37***	-						
	(7)	-.11**	.17***	.12**	.11**	.75***	-.58***	-					
	(8)	.07	.18***	.16***	.11**	.73***	-.32***	.70***	-				
Parent-fetal attachment behaviors	(9)	.06	.04	.06	.24	.22***	-.08*	.18***	.21***	-			
	(10)	-.01	.12**	.11**	.02	.30***	-.19***	.27***	.34***	.49***	-		
	(11)	.01	-.01	.07	-.02	.32***	-.14***	.28***	.32***	.42***	.62***	-	
	(12)	-.02	.08*	.20***	.10*	.40***	-.07	.32***	.42***	.32***	.44***	.47***	-
	(13)	.03	.02	.15***	.02	.35***	-.13**	.29***	.38***	.45***	.55***	.59***	.57***

Note. ① Pregnancy period ② Birth order ③ Planning pregnancy ④ Family income ⑤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⑥ Negative communication ⑦ Respect ⑧ Care ⑨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⑩ Interaction with the fetus ⑪ Attributing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⑫ Giving of self ⑬ Role taking
* $p < .05$, ** $p < .01$, *** $p < .001$

소통과 갈등해결($r = .40, p < .001$), 존중($r = .32, p < .001$), 상대방 배려($r = .42, p < .001$)와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자녀가 첫째이고 계획임신이며, 가구 월 소득이 높고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많이 하며 존중과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수록 자기제공이 높았다. 역할취득은 계획임신($r = .15, p < .001$),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r = .35, p < .001$), 존중($r = .29, p < .001$), 상대방 배려($r = .38,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의사소통($r = -.13, p < .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계획임신이고,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하며 존중과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을 덜할수록 역할취득이 높았다. 태아애착 5가지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32에서 .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3. 임신기 부부의 부모 특성과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일반적 변인 및 부부관계의 질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효율적 의사소통($\beta = 2.19, p < .05$)은 자신과 태아의 구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6%이었다. 즉, 효율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신과 태아의 구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대방 배려($\beta = 4.05, p < .001$)와 부정적 의사소통($\beta = -2.01, p < .05$) 순으로 태아와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4%이었다. 셋째, 상대방 배려($\beta = 3.16, p < .01$), 출생순위($\beta = -2.24, p < .05$),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beta = 2.22, p < .05$) 순으로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13%였다. 즉,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수록,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수록, 효율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을 더 많이 하였다. 넷째, 자기제공에 대해 계획임신 여부($\beta = 3.82, p < .001$), 상대방 배려($\beta = 3.71, p < .001$),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beta = 3.70, p < .001$), 부정적 의사소통($\beta = 2.54, p < .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그 설명력은 22%였다. 즉, 계획임신이고,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하고 효율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기제공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배려($\beta = 4.37, p < .001$), 계획임신 여부($\beta = 2.38, p < .01$),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beta = 2.07, p < .05$), 존중($\beta = .64, p < .05$) 순으로 역할취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설명하는 정도는 17%였다. 즉,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하고, 계획임신 일수록,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존중을 많이 할수록 역할취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신부부의 부부관계 질의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고 부부관계의 질에 따른 태아애착 정도, 부부관계와 태아애착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Table 6.
The effect of marital quality, parent characteristic on parent-fetal attachment

independent variable	Parent-fetal attachment behaviors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etus	Interaction with the fetus	Attributing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to the fetus	Giving of self	Role taking
General characteristics					
Pregnancy period	1.91	1.28	1.22	.68	1.53
Fetal birth order	-.24	1.15	-2.24*	.07	-.89
Planning pregnancy	.63	1.08	.69	3.82***	2.38*
Family income	-.09	-.74	-1.51	.48	-.98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2.19*	1.53	2.22*	3.70***	2.07*
Negative					
communication	-.18	-2.01*	-.58	2.54*	.50
Respect	.35	-.27	.76	.83	.64*
Care	1.42	4.05***	3.16**	3.71***	4.37***
<i>R</i> ²	.06	.14	.13	.22	.17
<i>F</i>	5.10***	11.90***	11.58***	20.95***	15.13***
(<i>df</i>)	(8,600)	(8,600)	(8,600)	(8,600)	(8,600)

p* < .05, *p* < .01, ****p* < .001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임신부부의 부모 특성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과 태아애착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 특성에 있어 임신주수, 출생순위, 계획임신 여부, 월 소득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에 차이를 보였고, 계획임신 여부와 가구 월 소득에 따라 태아애착에 차이를 보였다. 즉 임신주수가 짧고, 태아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계획임신인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경우 부부관계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획임신과 월 소득이 연관되어 있다고 나타난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Moon 외(200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들이 계획임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비된 임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경제력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에서 저출산 대비 정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지만 아직도 임신부부의 인식에서는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임신율이 74.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Moon 외(2003)의 연구에서 계획임신율이 50%정도 나타난 것에 비해 높은 결과로 최근 결혼시기가 늦추어지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부부관계의 질은 부부가 원하는 임신을 하

고 계획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첫째 아이인 경우 더 애정을 가지고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부모역할에 관심을 갖는다는 Cho(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가구의 월 소득에 따라 부부관계 질의 차이를 보인 결과는 개인 소득이나 가족소득이 높을 경우 결혼의 질이 높게 나타난 Hong(1994)의 연구나 남편의 수입이 많은 경우 부부갈등이 낮아진 Oh(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태아애착 정도는 계획임신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을 계획했는지 여부에 따라 태아애착의 하위영역 가운데 자기제공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Chang, Choi, Park과 Jun(1992), Lee(1993)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계획임신 여부에 따라 태아애착 행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Kim(1997)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또한 임신주수나 출생순위에 따라 태아애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첫째(91.6%) 아이를 임신한 경우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주수가 태아애착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Yarcheski 외(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임신부부의 일반적 특성이나 산과적인 특성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추후 배경

변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산부부의 부부관계 질의 경향성을 알아본 결과 부부관계 질의 총점은 4점 만점에 임산부와 배우자 모두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가운데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소통에 있어, 부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상대방 배려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게 평가했고, 총 결혼만족도, 교류, 정서, 존중은 아내가 남편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부부관계 질의 교류적 영역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가 인식하는 상대방의 효율적 의사소통 점수는 임산부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의사소통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연구한 Kim(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배우자는 임산부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평균 정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임산부는 배우자가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서적인 영역의 '존중'과 상대방의 배려' 영역은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부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임산부부의 태아애착의 경향성을 알아본 결과 태아애착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역할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와 임산부의 태아애착 점수 모두 4점 만점에 평균 3.3점을 넘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임산부의 태아애착 점수가 배우자의 태아애착 점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태아애착 점수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hn(1993), Hur(1995), Koh(1988)의 연구에서 태아애착 점수가 보통 정도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태아애착 점수가 높고 특히 배우자의 태아애착 점수가 높은 이유는 최근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구대상자인 임산부부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남편의 동반 참여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임산부의 태아애착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행복감이 아내의 태동 등 실제 태아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최고의 경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한 연구결과(Fawcett & York, 1987)와 유사한 결과이다.

태아애착 하위영역 중 임산부와 배우자와의 차이를 보인 영역 가운데 '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 영역은 임산부가 배우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 '자기제공' 영역은 배우자가 임산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산부보다 배우자가 높게 나타난 '자기제공' 영역은 임산부 스스로 변화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임신 중 겪게 되는 어려움이 경험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오히려 이 부분을 높이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가운데 '나는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임신 중 배우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을 포함한 문항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임산부가 자신이 임신과정 중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나 정서적 마음가짐,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인 남편보다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신세대 배우자들의 관심과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부모 특성, 부부관계의 질과 태아애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생순위와 계획임신 여부는 태아와의 상호작용과 자기제공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임신에 대한 계획 여부가 모성태아애착에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Hur(199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 특성 가운데 월 소득은 태아애착의 자기제공과 상관이 있고 부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존중, 상대적 배려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부관계의 질 가운데 효율적 의사소통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태아애착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자기제공을 제외하고 태아애착 모든 하위영역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효율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배려 할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태아애착의 모든 영역, 즉 태아와 상호작용, 자신과 태아의 구별, 자기제공, 역할취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Baek(2009), Chung(2004), Lee(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Baek(2009)과 Koh(198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가 태아애착과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고, Chung(2004)의 연구에서도 안정형 임부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산전애착이 관련성을 보였다. 임산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는 태교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결혼 생활에 만족할수록 태교인식과 실천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Sung & Ju, 2011)는 결과와도 연계될 수 있다. 즉 부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결혼생활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의 질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E-Y. Cho(200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의사소통이 임산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 태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야함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태아애착이 상관을 보인 것은 개인의 성격 특성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 결혼생활의 예측인자와 더불어 부부의 상호작용과정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것이 애착에도 상관을 보이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질 즉 결혼의 질이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경적 요인, 상호작용적 과정, 성격 특성 등이 있을 수 있는데(Larson & Holman, 1994; Oh, 2002),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월 소득,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 특성이 태아애착에 주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출생순위와 계획임신이 영향을 미쳐 둘째 이상인 경우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을 더 많이 하였고, 계획임신을 한 경우 자기제공과 역할취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생순위에 따른 애착점수에 있어 첫 아이인 경우 애착정도가 높게 나타난 Chung(2001)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며, 임신의 계획 여부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Hur(1995)와 Lee(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부부관계의 질이 태아애착에 주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부관계의 질은 태아애착의 모든 하위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로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상대방 배려는 자신과 태아와의 구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많이 할수록 자신과 태아의 구별을 잘하고,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을 많이 하고, 자기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취득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임신부부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 부부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해 부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Chung(1991)의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부 간의 의사소통효율성으로 나타났고, 서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은 부부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과 같이 부부가 함께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동반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부관계 질이 높을수록 태아애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영역의 상대방 배려 또한 태아애착에 모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의 질과 관련된 정서적인 변인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결혼적응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quoted in E-Y. Cho, 2003)와 정서적 요인이 결혼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E-Y. Cho,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태아애착의 자기제공이 높게 나타난 점은 부부 간의 총점을 합하여 결과를 산출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임신부의 태아애착 점수는 평균 3.20이며 배우자의 점수는 3.43으로 임신부의 자기제공의 점수가 낮았지만, 임신부는 배우자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낮게 인식하였고($M = 1.60$), 배우자는 임신부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높게 인식하였다($M = 2.06$).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점수 차이가 난 문항을 밝히고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태아와의 애착은 이후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까지의 애착과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의 질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 여가활동 참여, 정서적 지원, 의사소통 등을 통한 가족 간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계획 임신 여부가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부부가 준비없이 임신을 하기보다는 결혼 초기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와 계획임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단지 임신부 뿐 아니라 남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임신부부의 정서적, 의사소통적인 변인을 포함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알아보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중심으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태아애착과 관련된 변인 가운데 부부관계의 질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 뿐 아니라 배우자 지지, 임신부의 가족 분위기나 가족형태 등과 관련된 가족 및 환경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교육에 참여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일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표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질 가운데 교류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부분을 포함시켰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 도움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

- Ahn, S-H. (1993). An exploration of the parent & maternal-fetal attachment. *Korea Journal Woman Health Nurs*, 3(1), 49-63.
- Baek, H-J. (2009). Mediation effect of recognition of spousal support and emotional state on the relationship of pregnant women's attachment to mother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Burney, T. (2001). *Fetus has acquaintance*. Seoul: Samter.

- Chang, S-B., Choi, Y-S., Park, S-M., & Jun, Y-M. (1992). The rate of planned pregnancy and maternal fetal attachment. *Younsei University of Nursing Thesis Collection*, 14, 47-61.
- Cho, E-Y. (2003). The research regarding the quality and a stability of marriage in early stage of marital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 H-S. (2003). Som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37(1), 91-115.
- Cho, J-E. (2005). A study on the changing factors which can influence a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B-C. (1991).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Statistics consultation*, 6(1), 23-32.
- Chung, H-S. (2001).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Korean-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2), 205-224.
- Chung, Y-S. (2001).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fetal attachment.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7(1), 38-49.
- Chung, Y-S. (2004).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prenatal attachment according to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0(3), 210-217.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 281-284.
- Fawcett, J. (1978). Body image and her pregnant couple. *MCN*, 3(4), 436-440.
- Fawcett, J., & York, R. (1987). Spouse's strength of identification and report of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Florida Nurs Rev*, 2(2), 1-10.
- Grace, J. T. (1989). Development of maternal-fet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8(4), 228-232.
- Ha, S-E. (2004).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marriage satisfac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degree of prenatal care pract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B-S. (1994).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decision-making style and marti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Hur, M-H. (1995). Analysis of perceived spouse support and self concept and other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fetal attachment. *Kimcheon Science College*, 21, 279-329.
- Kang, H-S., & Kim, Y-H. (2008).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with young coupl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6(1), 135-156.
- Kim, H-J. (1997). The study of the maternal identity and fetal attachment behavior by pregnant women. *Seoung Shin College of Nursing Thesis Collection*, 7, 83-96.
- Kim, H-J. (2004). A study on the factors of korea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5(3), 839-853.
- Kim, H-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motional expression of mothe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Y. (1991). The research about maternal fetal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Y. (2000). Effects on maternal-infant attachment by the Taegyo perspective prenatal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J., Yang, S-O., & Chung, K-H. (2004).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pregnant couples.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0(3), 200-209.
- Koh, M-S. (1988).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support behavior perceived by gravida and fetal attachment behavior. Unpublished

-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hip, 43*, 228-237.
- Lee, K-H., Park, Y-J., Byun, S-J., Yoo, E-K., Lee, M-L., Lee, E-S., et al. (1997). *Women's Health Nursing*. Seoul: Hyun Moon Sa.
- Lee, Y-H. (1993). The research about effect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academy) Research Journal, 19*, 331-351.
- Moon, M-J., Chung, M-D., Choi, J-S., Ahn, H-K., Ryu, H-M., Lim, H-J., et al. (2003). The rate of planned pregnancy and associated factors related to planned pregnancy.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46(9)*, 1741-1745.
- Oh, S-J. (200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self and the spouse and marital quality: Comparison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Journal of Human ecology, 40(10)*, 201-215.
- Park, M-K., & Lee, Y-S. (1999).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ful life events, maternal-fetal attachment behaviors and childbirth variables during pregna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1)*, 47-61.
- Sung, M-H., & Joo, K-S. (2011). Relationships among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and practice of taekyo in pregnant women.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7(1)*, 30-38.
- Yarcheski, A., Mahon, N. E., Yarcheski, T.J., Hanks, M. M., & Cannella, B. L. (2009).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 708-715.

접 수 일 : 2012년 1월 27일

심사시작일 : 2012년 2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4월 4일